

진즈패션의 상징성 연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김민정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A Study on the Symbolism of Jeans Fashion -Focusing on the Designer Brand-

Min-Jeong Kim · Keum-Seok Cha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ivision of Human Ecology,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2002. 8. 28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jeans fashion in the basis of designer brand, and to analyze the symbolic characters of jeans fashion.

Designer brand re-established jeans fashion by compounding high cultural factors and low cultural factors, broke up the boundary between street fashion and high fashion, and escaped from fixed idea on materials and design. This study divides the types of jeans fashion within the designer brand into classifications of Hippie style, Punk style, American Street style, Neo-classic style, and Grungy style. Today, reinterpreting the resistant image of jeans fashion, designers creates the various styles and also restores the upscale image of it. The symbolic characters of jeans fashion are summerized as sexuality, deconstructiveness, conspicuousness, humour, and multiculturalism.

As the results of the symbolic characters of jeans fashion in the new Millennium era will suggest the wide aesthetic expression and continue to influence a more diverse jeans fashion trends.

Key Words : Jeans Fashion(진즈패션), sexuality(관능성), deconstructiveness(일탈성),
conspicuousness(과시성), humour(유희성), multiculturalism(다문화성)

I. 서론

편안한 의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는 20세기 패

션의 특징 중 하나이다. 덜 구조적이고, 덜 장식적이며, 현대생활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의상들이 패션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였다.¹⁾ 이러한 경향의

대표주자는 기능적이고 단순한 의복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패션이며, 진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185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에 의해 광부들의 작업복용으로 대중화된 이래로 진즈(Jeans)는 시대를 초월하여 연령, 인종, 성별과는 구별 없이 일상적으로 착용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애호되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디자이너 브랜드로의 전환을 계기로 진즈가 상향전과 되면서 반문화 패션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주류 문화 패션으로 진즈가 재해석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하위 문화집단의 패션이 디자이너의 세련된 터치로 거듭나면서 진즈패션의 내적 의미 변화도 과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면서 가장 대중적인 복식이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20세기말에 나타났던 혼란스러운 현상과 같이 더욱 복잡하고 다의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진즈패션의 시대적 변천과정에 따른 진즈패션의 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현대 패션의 발전과 디자이너 브랜드로의 전환 내용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외적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파악하였다. 셋째는 젊은 문화와 안티 패션(Anti-Fashion)을 대표 하였던 20세기 전반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20세기 후반기에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등장하여 고급스러운 패션으로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진즈패션에 내재된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진즈패션(Jeans Fashion)의 변천과정

1. 진즈(Jeans)의 개념

진즈라는 용어는 1567년경 이탈리아의 Genoa 지방의 직물을 가리키는 진즈(genes)에서 유래하였다. 진(Jean) 또는 진즈(Jeans) 말로 전해져 오늘날 통용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에는 Denim

이 있다.

진즈(Jeans)라고 하면 데님지로 만든 바지, 작업복 바지 또는 오버올즈(overalls)를 말한다. 앞뒤에 장식 스티치로 박은 주머니들이 달려 있으며, 덩거리, 리바이스(Levi's), 오버올즈(Overalls)라고도 한다.²⁾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의 개념에 근거하여 진 또는 데님을 소재로 하여 진즈의 독특한 구성방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유행의상들을 진즈패션으로 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진즈패션(Jeans Fashion)의 시대적 변천

1) 진즈패션의 출현 시기(1840년대-1940년대)

1848년 미국에서 금에 대한 붐(Gold Rush)으로 광부들에게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1853년 Levi Strauss는 천막이나 텐트용 직물을 이용하여 오버올 진즈(overall jeans)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곧 세계 최초의 청바지이다³⁾. 이처럼 19세기 후반 리바이스에 의한 진즈의 첫 출현은 미국 서부의 광부들과 카우보이들의 중요한 작업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진즈패션은 Santa Fe 지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예술가 집단에 의해 일종의 반 패션(anti-fashion)으로 선택되기도 하였으며, 서부 신화의 상징으로 Hollywood Cowboys 영화에 진즈패션이 나타나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의 동부 부호들이나 도시 여성들에게까지 패션의상으로 수용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소수인들의 모방현상으로 광범위한 수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진즈의 패션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즈의 착용 인구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현상들이었다. 1940년대에 진즈는 노동복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수용 인구면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한 미국 군인의 유니폼이었던 데님 유행이 유럽으로까지 광범위한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진즈패션의 대중화 시기(1950년대-1970년대)

1950년대 초반 진즈 스타일은 허리나 허벅지 부분이 여유있고 긴 길이를 걷어 입는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1958년 이후 로큰롤의 영향으로 볼품없고 해진 듯한 진즈가 유행하게 되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진즈의 유행이 보다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영화 속의 반항적인 이미지의 주연이었던 Malron Brando와 James Dean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기성세대에 반항을 대변하던 팝뮤직션들의 의복차림도 젊은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블루 진즈 또한 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필수 의복이었다. 진즈는 개성의 표시와 젊은이들의 문화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으며 당시 사회에 저항하는 반체제적 사회의 한 일환으로서 더욱 인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의 표현으로 시작된 디테일의 첨가는 자수, 애플리케, 패치, 징 등으로 장식한 진즈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⁴⁾.

1970년대 블루 진즈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복장으로서 견고하고 경제적이어서 젊은이를 대표하는 부담없는 옷으로 남녀 구별없이 입혀졌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젊은이 중심의 진즈패션에서 중년층과 중류층 그리고 고소득의 상류층도 레저웨어 용도로 진즈를 입기 시작하면서 진즈패션은 새로운 패션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소수 특정인만이 살 수 있는 높은 가격대의 특이한 스타일의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롭고 영향력있는 젊은 대중문화 패션을 추구하던 신진 디자이너들은 패션이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대량 시장 상품에 디자이너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미국 디자이너인 Calvin Klein은 자신 이름의 라벨을 붙인 고급 진즈의류를 패션시장에 최초로 대량생산 하였다. 이는 진즈패션이 고급패션을 의미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으로서 사회적 지위 상승을 하게되었다는데서 중요한 의미로 평가된다. 이후로 1980년까지 Marithe & Francois Girbaud, Gorgio Armani를 포함한 30여명 의 디자이너들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진즈 라인을 갖게 되었다⁵⁾. 이

와같이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의 출현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컨드 브랜드 출시 및 확장과 영 마켓이 패션시장에서 주요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른 결과이며, 이러한 등장으로 한층 높은 지위와 브랜드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3) 진즈패션의 다양화 시기(1980년대 이후)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진즈패션을 더욱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문화 패션으로서의 진즈패션의 반항성을 약화시켰고 주류문화 패션으로 이끌고 있다. 그 양상은 민주주의의 상징, 실용성, 계급차별이 없는 진즈패션에 초점을 맞춘 경향과 다른 한편에서는 진즈패션을 취향, 차별, 계급적 구분 등 전통적 패션의 속성을 재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진즈패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III.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유형

1. 현대 패션과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이란 특정한 기호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예술지향적인 사람들, 즉 고급 의상 제작자(Haute Couturier)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의 창조적 원동력으로 그 발전의 중심에 위치한 디자이너들의 근원을 18세기 의복제작자, 재단사, 직물 제조업자들에서 찾을수 있으며, 그들은 명성도 없었으며 그저 기계적 기술을 수행하는 하위영역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서면서 프랑스에서 디자이너가 예술가라는 인식이 생겨난 이후에 재단사는 상업적 성공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⁶⁾ 그리하여 그들의 지위가 화려한 예술가, 시인, 우아한 심미가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 패션은 다양한 발전을 거듭하여 패션업 종사자들은 그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의상 제작에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신진 디자이너들은 새롭고 영향력 있는 스타일을 창조

함과 동시에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패션을 만들어냈다. 기성복 산업의 발전으로 고급 디자이너들의 이름이 브랜드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디자이너들의 브랜드화로 그들의 영감의 원천도 젊은이 중심사회에서 또는 대중문화에서 얻게 되었다.⁷⁾

새로움을 추구하고 젊은지향을 하던 신진 디자이너들의 출현은 고급 패션과 반문화적 패션을 가까이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그들의 출현은 최신 유행을 생산하던 오프 꾸뜨르의 패션을 위축시켰다. 점차 브랜드 다원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도달하게 되고, 패션에서 민주화는 예술과 현실의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예술의 독창성과 유일무이성은 기계에 의한 대량복제에 의해 보편적인 모조품으로 전락하면서 그 자체가 해체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패션에서는 오프 꾸뜨르라는 고급문화와 프레타 포르테의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의 해체를 뜻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오프 꾸뜨르에서 소개된 것인지 또는 프레타 포르테에서 소개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보다는 세계적으로 그 창작성과 감각이 인정을 받음으로써 명성을 얻은 디자이너의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2.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 유형

패션은 그 자체를 초월한 현대 관료 사회의 출현에 대한 암시이며, 사치와 계급 차별화에 따른 경쟁이란 역사의 한 장을 넘어서 “민주화에 대한 혁명”의 양상인 것이다.⁸⁾ 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등장인 것이다.

기성복 체제의 디자이너들은 충격적이고 새로운 것, 과거 전통과의 단절, 스펙터클한 것, 정서적인 영향과 같은 요소들을 절충적으로 혼합한 현대 패션은 과거 오프 꾸뜨르의 독점적이고 귀족적인 체계에서 어떤 한자기 이름이 대중의 취향과 형태의 미학을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상표 다원주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극단적인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구세대/신세대 또는 상

류층/중류층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시장 상품들이 의외의 명성을 얻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⁹⁾

현대 패션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는 패션이 산업화되면서 과거 재단사로 취급받던 과거 의상 제작자가 예술품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라는 명성을 달고 브랜드화 되었다. 그리고 패션의 산업화와 대중패션의 중요성 증가의 원인으로 20세기 후반 오프 꾸뜨르보다는 프레타 포르테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대중매체와 여가를 즐기는 젊은이 문화가 중요해지면서 가장 대중적인 패션 아이템인 진즈패션은 고급의류의 디자이너들이 반체제 문화의 스타일에서 독특한 하이패션 스타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디자이너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현대패션에서 창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진즈패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뉘어 볼 수 있다.

1) 히피 스타일(Hippie Style)

히피 스타일은 물질주의와 기계문명에 대해 저항을 표현하는 1960년대의 하위문화 현상으로 등장하여 서구 드레스와 유사 깊은 민속의상을 모두 통합·변경·교환하여 낡은 옷차림과 패치워크, 이국적인 의상이나 장식, 소품 등으로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반문화적인 히피의 스타일이 20세기 후반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서 보헤미안의 감성을 담은 낡고 색이 바랜 진즈 또는 훌치기 염색된 진즈 또는 패치워크된 진즈에 비즈와 스팅글을 장식하여 기존의 안티패션 이미지를 탈피하였으며 패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히피 스타일의 현대적인 해석을 통하여 젊은 문화를 대표하는 스트리트 스타일을 로맨틱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런 네오 히피 스타일에서 나타난 진즈패션은 트렌드의 원천으로 각 나라의 에스닉을 혼합하여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2) 펑크 스타일(Punk Style)

펑크 스타일은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기존 미의식에 대한 도전으로 고무나 플라스틱 팬츠, 마

이크로 미니스커트, 플라스틱과 네트로 된 셔츠, 멜빵 바지, 당돌한 구호가 프린트된 티셔츠 등이 나타나며, 소매나 바지 부분에 구멍을 내기도하고 일부러 너털너털하게 하여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조형적 특성 영향으로¹⁰⁾ 디자이너 진즈패션에서는 고정관념을 일탈하여 슬래쉬, 구멍, 찢기 기법으로 육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거나 진즈의 원형이 파괴된 형태를 디자이너 특유의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즈에 저급한 장식 뿐 아니라 고급 액세서리를 부착하기도 하였다.

3)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타일(American Street Style)

20세기 후반 다원주의 현상으로 젊은이들 중심의 하위문화들이 주류문화로 등장하였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패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의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웨스턴 스타일과 빈민가 흑인의 거리댄스와 뮤직에서 비롯된 힙합 스타일이 젊은 대중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 거리문화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었다.¹¹⁾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타일은 흑인의 댄스와 뮤직, 그리고 카우보이의 로데오 경기에서 발생되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그 특징은 카우보이 패션의 카우보이 모자, 웨스턴 셔츠, 블루진즈, 웨스턴 부츠 등 웨스턴 스타일(Western Style)과 낡고 헐렁하며, 허벅지 부분이 넓은 배기 진즈, 몸에 비해 훨씬 크고 헐렁한 셔츠, 밑창이 두꺼운 신발 등의 힙합 스타일(Hip-Hop Style)로 분류할 수 있다. 디자이너 진즈패션에서 타난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타일은 금속 리벳과 애플리케를 하여 요란하게 꾸미거나, 상표를 눈에 띄게 부착하여 장식성과 과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이 과시적 욕구와 반항의 표현으로 착용하던 스트리트 스타일이 21세기에다 하이패션에 수용되고 대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네오 클래식 스타일(Neo-Classic Style)

네오 클래식 스타일이란 기하학적, 건축적인 조

형 감각으로 진행해 가는 초현대적인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충분한 장식성과 공들인 디자인으로 상징되는 소위 고전적인 복장에 대한 동경의 표현을 지칭한다.¹²⁾ 단순히 복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복장의 현대적이고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그 고전적인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현재에 재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의 특징은 기능성과 실용성에 치중하여 대량생산·대량소비 되는 일반 기성복 경향과 대비를 이루는 오피 꾸뛰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본래 진즈는 이렇게 장식적이고 고급스러운 특성과는 무관한 의복이었지만 디자이너 브랜드의 진즈패션이 매 컬렉션에서 소개되면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 감각이 부여된 고도의 수공예적 기법이 적용되어 장식적 아름다움과 우아한 복식미가 더해가고 있다.

5) 그런지 스타일(Grunge Style)

그런지는 1980년대 후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로 세기말 혼란의 상태에서 발생한 실용적인 스트리트 스타일의 하나로 이러한 복식의 특징은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레이어드하여 입거나 빈티지 이미지 또는 파괴를 통한 표현을 선보이고 있다.¹³⁾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서 그런지 스타일은 울퉁기, 풀라주 기법이나 패이딩의 빈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히피 스타일의 진즈패션이 여성적이고 고급스러운 감각으로 도회적인 히피를 재현한데 반해 그런지 스타일의 진즈패션은 히피의 남루하고 초라한 멋을 재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 1970년대 Mods, Hippies, Punks의 파괴적인 스타일은 기존 미의식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며 이상한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기존 패션 주류에 대항하는 스트리트 패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는 주류문화와 하위문화가 공존하는 복수문화, 즉 문화적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하위문화는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주류 유행에 반유행을 형성하며 그들만의 반항적인 정체성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것이 거리의 청소년들이나 소

외된 계층에게 어필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 청소년 중심의 안티패션으로서의 진즈패션이 성, 연령, 계층을 초월하여 진즈패션 착용이 확산됨으로 디자이너들이 진즈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디자이너 진즈패션이 탄생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난 진즈를 하이패션에 수용하여 대중화하였다. 오프 꾸뛰르와 프레타 포르테의 디자이너 진즈패션은 기존의 안티패션에서 나타난 반항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진즈패션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재와 기법을 이용하여 하이패션의 이미지로 시도한 것이다.

IV. 진즈패션의 상징성

1. 관능성

과거 의복을 통한 관능적 표현이 이성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대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평등에 대한 사고가 확산되면서 자신감과 자유로운 표현의 한 방향으로 성적욕구를 발산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원래 진즈는 실용성을 강조한 노동복으로 이러한 관능성과는 무관한 아이템이었지만, 유행의 흐름에 따라 현대 패션의 자유분방한 창조성이 투여됨으로서 관능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진즈패션에서 관능성은 신체밀착과 강조를 통한 간접노출, 성적부위의 직접 노출, 속옷의 노출, 동성애적 이미지 등으로 표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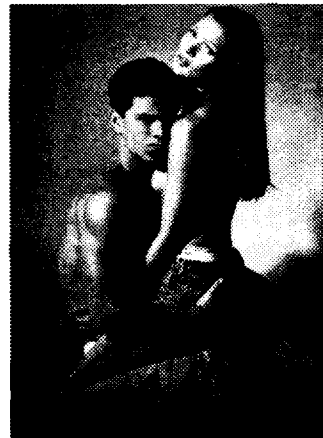
진즈패션에서는 엉덩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체에 밀착되게 입음으로써 신체 형태를 강조해주고 힙, 허리, 다리를 돋보이게 했다. 이처럼 인체에 복식을 밀착시킴으로 인해 인체의 굴곡선을 드러나게 하고 나체를 연상시키며 에로틱함을 더 느낄 수 있게 한다.

대담한 노출은 기존의 도덕관념이나 가치 체계에 대한 반항인 동시에 인체 자체에 시선을 집중시

키게 됨으로서,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에로틱한 분위기까지 느끼게 한다. 이러한 대담한 노출경향은 복식 조형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를 패션으로 받아들여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¹⁴⁾

1980년대 이후로 Ralph Lauren, Calvin Klein, Perry Ellis 등 많은 미국의 기성복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자주 데님을 등장시켰으며 이때의 진즈패션은 성적 이미지가 그 상품의 성패를 결정지었다.

<그림 1>의 Calvin Klein 광고는 충격적인 에로티시즘 표현 광고로 기존 진즈패션이 가지는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것에서 벗어난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브룩 쉘즈에서 시작한 블루진즈 광고 상품 문화로서의 관능성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 올렸다. 진즈패션 위로 드러난 속옷은 대중사회에서 개인의 은밀함과 충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신체와 가장 가까운 특별한 것이면서 인체와 의복 사이에 필요한 내부 공간을 제공해주는 상반된 역할을 지니고 있다.¹⁵⁾



<그림 1> Calvin Klein Jeans 광고의 관능성 표현, Vogue USA, 1992. 5

오늘날 광고는 신체의 섹시한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진즈는 신체적 개성안의 특이성을 나타나게 해준다. 신체를 숨기는 옷, 주목을 끌지 않는 옷을 대신해 더 촉감적으로 바로 더 성적

인 느낌을 전달하는 옷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많은 함축적 이미지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해석 가능케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된 진즈패션의 이미지는 청순한 소년, 소녀에서 매우 관능적인 모습까지로 변화가능케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광고에서 표현된 진즈패션 이미지는 인간의 젊음을 육체승배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자신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을 유도한다. 자신의 이미지를 가공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¹⁶⁾하는 젊음지향의 이미지를 내포하기도 하였다.

2. 일탈성

지금까지 디자이너 브랜드는 고품질의 패션을 의미하는 오프 꾸뛰르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정제된 미와 우아함을 연상시켜 왔다.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는 유한 계층들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치스럽고 장식적이었다. 그러나 1920년 Chanel은 외적 사치를 의복에 적용하는 대신에 빈곤과 황폐화시킨 푸어룩(poor look)으로 아름다움의 일탈, 계층적 일탈의 속성을 보여주었다.

수세기 동안 패션에서 유행은 상류계층에서 시작하였으나, 진즈패션과 같은 캐주얼한 의복이 유행하고 유명스타도 그러한 옷을 착용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은 사람을 모방하는 대신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나타나는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반인들의 기호가 우세해지고 진즈패션의 확산도 위계질서적인 위에서 아래라는 규칙을 탈피했다.¹⁷⁾ 이처럼 진즈의 유행은 사회계층의 정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던해지고 즐거움을 찾고 자유로운 개성표출을 위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신분 초월, 독립, 평등,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가치관과 정서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의복에 있어서 이러한 일탈성은 자주 등장한다.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 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써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일부러 진즈패션을 슬래쉬(slashed)

하고 손상하고(spoiled) 찢고(ripped) 흠을내는 방법으로 복식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이 패션은 의복에 대한 흥미를 더욱 늘리기 위해 보다 분석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일탈작업은 분석적 창조외 한 과정이 되었다.¹⁸⁾ 이처럼 일탈적인 복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에 대한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Martin Margiela의 일탈성 표현,
Fashion Show, 99 s/s, p.263

진즈패션에서 나타나는 일탈성의 표현은 첫째는 파괴를 통한 일탈성, 둘째는 빈곤과 황폐화를 통한 일탈성, 셋째는 이질적 소재를 사용한 일탈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복식에서 파괴는 의복 소재에 일부러 칼집을 내거나 찢거나 의복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핑크룩이 대표적인 보기로 기존 미의식에 충격과 추의미를 보여주는 파괴적 일탈을 다루고 있다. 다음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빈곤, 황폐에서의 일탈성은 모더니즘 시대에서 보여지던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나 부에 대한 과시, 미를 추구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기존 복식의 목적론을 해체하고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인 패치워크, 짜집기, 탈색 및 퇴색 등을 통해 복식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

것은 푸어룩 또는 그런지 룩의 양상을 띄게 된다<그림 2>. 마지막으로 이질적인 소재 사용으로 인한 일탈성을 살펴보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색채, 소재를 서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탈성의 표현양상이 진즈패션에서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주류패션에 계층부재, 자유, 새로운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서는 고정관념화된 미의 전형과 계층적 속성의 일탈성을 상징하고 있다.

3. 과시성

1980년대 이후 진즈가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역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저가의 반항적 이미지 대신 고급스럽고 지성적인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가 본격화되었다. 더욱이 20세기 후반 진즈패션에서 디자이너의 고급 라벨에는 디자이너 이름을 새겨넣음으로 인해서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새로운 상징적 코드가 되었다. 이러한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서 표현된 과시성은 대중매체의 스타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현대 진즈패션에서 선명하게 새겨진 디자이너 라벨을 통해 부를 과시하려는 경향으로



<그림 3> Jean Paul Gaultier의 과시성 표현,
www.firstview.com, 99 s/s Haute Couture

취향, 차별, 계급적 구분에 대한 전통적 요구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3>은 오프 꾸뛰르의 살롱문화를 완벽하게 재현한 화려한 깃털장식의 진즈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아함, 아름다움, 귀족성 등의 과시적 속성이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를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오프 꾸뛰르의 사치스런 멋의 미학을 자수와 비즈 기법의 뛰어난 솜씨, 유명로고와 라벨을 통한 디자이너의 명망으로 새로운 차별성을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였다.

4. 유희성

오늘날 현대 패션에서 재미있는 유머 감각의 패션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이 현대 미학과 대중문화 여흥의 한 요소¹⁹⁾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철학과 미학의 분야에서 유희성이란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변형, 부조화를 통한 단순한 웃음뿐 아니라 혐오, 유패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유발하는 그로테스크의 포함을 뜻한다.²⁰⁾

예술에서의 유희성이 복식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생성된 초현실주의 복식은 1980년대 이후 복식에 유머와 예술의 조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Elsa Schiaparelli는 복식을 통해 부와 사치를 즐기는 부유층에 대한 비난과 혼란한 1930년대의 현실에 무감각한 하이패션의 일시적이고 제멋대로인 특성을 지적하면서²¹⁾ 꾸뛰르 세계에 유머와 예술의 조류를 보여주는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기말에 대한 불안과 흥분,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나 경제적 상황을 비판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수용하고 다양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패션에서 오히려 유머감각의 복식으로 표현된다. 패션에서 유희성은 인간의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한 자세로 돌아가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모색을 하게 된다.

진즈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표현은 기존 의복 형태의 왜곡에 따른 유희성, 트롱프레이(trompe

l'oeil) 기법에 따른 유희성<그림 4>, 착장의 변화에 기인한 유희성, 유아적 이미지 연출에 따른 유희성의 양상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4> Jean Paul Gautier의 유희성 표현,
www.firstview.com. 2000 s/s

현대 복식에서 이러한 동화나 우화의 환상적 표현은 이성적인 의식세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고갈되고 메마른 정서에 전인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적인 의미의 유희를 느끼게 한다.²²⁾

5. 다문화성

현 시대의 국제화에 의한 패션의 보편화는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 문화속의 서구 중심적 모습과는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와 질충주의적 패션의 흐름으로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²³⁾

현대 패션에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서구복식과 토속적이고 장식성이 강한 각 나라의 민속복식의 혼합으로 지역적, 국가적인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각 나라의 민속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대표하는 산업화, 현대화, 기능주의, 실용주의의 대표복식으로 진즈패션

이 세계적인 일상복으로 정착되고 디자이너 브랜드에 의한 고가의 호화스러운 진즈패션이 등장하였다. 각 나라에서는 민족적 개별성과 복고풍의 유행, 수공예를 바탕으로 하는 장식적인 복식, 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페미닌룩, 하이패션과 대중패션의 현상을 통해 진즈패션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²⁴⁾

다문화성이란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즉 지배민족의 문화 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 또한 그 동안 가부장제 밑에서 남성한테 억압받아온 여성, 그리고 제 1세계나 제 2세계에 속한 서구문화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비서구문화도 그 대상이 된다.²⁵⁾

1980년대의 다원화,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제현상을 패션문화의 급격한 변천을 가져오면서 각국의 문화가 복합되어 표출되게 되었다.²⁶⁾ 특히 전통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는 서구 패션에서 소외되었던 제 3세계 등의 비주류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가져왔으며 오리엔탈리즘과 레트로의 양상 등이 현저하게 나타났다.²⁷⁾



<그림 5> Michiko Koshino의 다문화성 표현,
Gap Press(Vol.32). 2001 s/s. p. 181

<그림 5>는 일본식 전통 문양인 국화를 프린트

한 진즈 펍 스커트, 비대칭형 헤어, 그리고 일본식 신발인 게다를 착용하여 부드러운 동양적인 분위기에 거칠고 질긴 데님 소재의 진즈패션으로 에스닉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일상복인 진즈패션에도 각 민족복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진즈패션의 다문화성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며, 진즈패션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폈다. 각 나라의 복식문화의 특성이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다문화적인 진즈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진즈패션의 상징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진즈패션의 상징성

	표현양상	상징적 의미
관능성	① 신체밀착을 통한 간접 노출 ② 성적부위를 직접 노출 ③ 속옷 노출 ④ 동성애적 이미지	실용성을 강조한 노동복인 진즈패션에 자유분방한 창조성이 투여됨으로 관능적인 의미.
일탈성	① 파괴를 통한 일탈 ② 빈곤·황폐화를 통한 일탈 ③ 이질적 소재사용을 통한 일탈	고정관념화된 미의 전형과 계층적 속성의 일탈적인 의미.
과시성	① 디자이너 명성 과시 ② 고도의 수공예적 기법을 통한 과시	디자이너의 명망과 상류층의 멋의 미학을 구체화하는 기술을 통한 과시적인 의미.
유희성	① 기존 의복형태 변형 ② 트롱프레이 기법 ③ 유아적 이미지 연출	진즈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일축하고 불규칙, 비대칭, 미완성의 디자인의 고의적인 오류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유희적인 의미.
다문화성	① 비서구 지역의 민속의상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표현	서구·비서구 지역의 문화가 서로 혼합되고 자유롭게 변형되어 진즈패션의 지역적, 국가적인 경계의 구분대신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다문화적인 의미.

V. 결 론

진즈패션은 1853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1940년대까지 육체 노동자의 작업복으로서 유럽으로까지 착용자가 확산되었으며,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반문화 패션으로서 청년문화와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진즈패션이 대중화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전환으로 그 양

상이 다양화되었으며 주류문화 진즈패션으로 이르게 되었다.

현대 패션의 발전에서 기성복 혁명으로 신진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고 유명 디자이너들의 이름이 붙은 상품으로 인해 브랜드화 되기 시작하였다. 디자이너 브랜드 성립은 오피 꾸뜨르와 프레타 포르테 자체의 구분보다는 디자이너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디자이너의 창작성과 감각을 직접 표현해주는 아이템으로 진즈패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외적 특성에 근거한 유형을 히피 스타일, 핑크 스타일,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 그런

지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디자이너 진즈패션은 기존의 안티패션에서 나타난 반항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적 유형을 진즈패션에 내재된 상징성은 관능성, 일탈성, 과시성, 유희성, 다문화성의 5가지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진즈패션에서 관능성에 있어, 원래

진즈는 실용성을 강조한 노동복으로 관능성과는 무관한 아이템이었지만 유행의 흐름에 따라 현대 패션의 자유분방한 창조성이 투여됨으로서 관능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진즈패션은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기존 진즈의 이미지를 변용시켜 사회적 규율과 합리적 사고에 의해 억압되었던 내면세계에 존재해 있던 성적 갈등이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구화된 성과 상업화된 성 표현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노출과 은폐 그리고 진즈가 다른 소재와 절충된 표현, 부분적인 신체의 강조, 변용과 전위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노동복으로 오래되고 친근한 것으로 고정관념은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로 인해서 내면세계의 감정표출이나 표현기법의 다양성을 선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디자이너 브랜드는 고품질의 패션을 의미하는 오피 꾸뛰르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정재된 미와 고귀함을 대표하였다.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는 유한계층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치스럽고 장식적이었다. 그러나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의 양상은 고정관념화된 미의 전형과 계층적 속성의 일탈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과시성은 상류층의 멋의 미학을 구체화시키는 기술과 과거의 낡은 세대를 상징하는 사치스런 의상과 연관되어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서 사치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오피 꾸뛰르의 뛰어난 기술, 디자이너의 명망으로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서 과시성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진즈패션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일축하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기존 진즈의 형태 변형을 위해 불규칙, 비대칭, 미완성의 디자인의 고의적인 오류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유희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20세기 후반 출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일상복인 진즈패션에도 각 민족복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패션의 주변부에 있던 소수 민족복식의 독특한 형태미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각 나라의 민족적 개별성과 수공예를 바탕으로 하는 장식적인 표현으로 진즈패션의 다문화성을 표출하고

있다.

진즈패션의 상징성을 분석한 결과, 자유와 반항적 이미지의 반문화 진즈패션의 성향이 1970년대 후반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으로 상향전파되어 자유로운 개성과 멋의 미학으로 재현되어 나타난 외적 유형의 특성이 오늘날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패션에 내재된 상징성을 더욱 다양화·복합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진즈패션의 상징성 연구는 밀레니엄(Millennium)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고급스러운 진즈패션으로 새로운 미의식을 표현하고 다양한 진즈패션의 양상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진즈패션을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반문화적 성향이 약화되고 주류문화적 성향의 진즈패션이 크로스오버(Crossover)되는 시대의 연구가 미흡하였다. 또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디자이너 진즈패션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국내 브랜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 자료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및 아시아 브랜드 등의 다양한 진즈패션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Murray, M. 저, 채금석 역 (1997). 패션세계 입문 (초판). 서울: 경춘사. p. 198.
- 2)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 큰 사전 (초판). 서울: 교문사. pp. 531-532.
- 3)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 identity* (1st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9.
- 4) TexHerald (2000. 3. 13). 2000년 데님시장. 서울: 텍스헤럴드. pp. 3-4.
- 5) Costantino, M. (1997). *Men's fashion in the twentieth Century* (1st ed.). New York: Costumed Fashion Press. p. 110.
- 6) Finkelstein, J. (1996). *Fashion an introduction: The*

- exclusive origins of fashion*. (1st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9-20.
- 7) 질 리포베츠키 저, 이득재 역 (1999). 패션의 제국 (제 1판). 서울: 문예출판사. p. 158.
 - 8)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38, p. 383.
 - 9) *Ibid.*, pp. 158-161.
 - 10) 이선재 (1998). 의상학의 이해 (초판). 서울: 학문사. pp. 170-172.
 - 11) 허버트 J. 갠스 저, 강현두 역 (1998).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제2판). 서울: 나남. p. 168.
 - 12) 라사라 교육개발원 (1995). *복식사전* (개정판). 서울: 라사라. p. 86.
 - 13) Vogue USA (1992. 12). *Grunge style*. Vogue USA, p. 256.
 - 14) 김정자 (1998). KITSCH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 59.
 - 15) Martin, R., & Koda, H. (1993). *Infra-apparel* (1st e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p. 64-66.
 - 16) 질 리포베츠키 저, 이득재 역. *op. cit.*, p.170.
 - 17) 질 리포베츠키 저, 이득재 역. *op. cit.*, pp. 210-211.
 - 18) Martin, R., & Koda, H. *op. cit.*, p. 94.
 - 19) Wilson, E. (1987).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1st e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43.
 - 20)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 pp. 75-76.
 - 21) McDowell, C. (1993). *Dressed to kill: sex, power & clothe*. London: Hutchinson, p. 155.
 - 22)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초판). 서울: 경춘사. p. 360.
 - 23) 주명희 (1992).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p. 124.
 - 24) *Texjournal* (1995. 1). 21세기 패션문화. 서울: 섬유저널. p. 113.
 - 25) 김옥동 (1999. 12). 세계의 신사고: 서구문화의 중심축을 흔든 다문화주의, 2(12). 서울:WIN, p. 34.
 - 26) 김희정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복식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
 - 27) 윤명자 (1992). 현대패션의 오리엔탈리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0-53.